

地理教育科의 특색과 발전방향

金 周 煥
(東國大 地理教育科)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에서 地理學에 관련된 학과로는 地理教育科가 처음 생겼다. 1945년 이후이년까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그동안 학과 수가 늘어나고 敎科課程의 확대 내지는 분화가 계속되었으며 졸업생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學科가 생기고 敎科課程이 확대 개편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그것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地理教育科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고, 敎科課程의 傾向을 분석하며 學科의 發展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2. 地理教育科의 位置

1) 地理系 學科의 發展

新教育이 19세기말 韓國에 도입된 이래 20세기 초까지 地理學은 계몽지리 수준이기는 하나, 고등교육기관에서 활발히 교수되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는 日帝에 의한 植民政策으로 地理學은 대학의 전공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地理系 學科는 師範系 學科가 1940년대 말에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전반기에 타학

문 전공과 병설된 地理複合學科가 신설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학과가 설립되면서 현재 27개의 地理學科, 地理教育科 및 地理教育專攻이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까지 학사는 연간 1백 명 미만이 배출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2백 명 이상 배출되었고, 1980년대에는 1천 명 정도씩 배출되었다. 이들 중 약 3 할이 현재 中等學校 敎員으로 재직하고 있다.

석사학위는 대학원에 석사과정이 설치된 이래 700여 명의 석사와 46명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석사 중 8 할 이상이 中等學校 및 大學敎員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博士 중 9 할 이상이 大學의 敎授와 講師로 재직하고 있다.

地理學 敎授 역시 많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는 敎授의 量的 急成長期로 10년간 32명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새로운 敎授職이 마련되어, 1980년 70명에서 1989년 111명으로 증가하였다. 敎授의 質의 構造도 변동되었다. 博士學位 소지자가 1965년에는 단 2명이었으나, 전 교수에 대한 비율이 1970년에는 20%였던 것이 1989년에는 6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女敎授는 전체의 10% 정도이나 전공 여학생 비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수의 출

신대학은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있으며, 1970년 대말 이후 교수의 同種増殖 情狀이 나타나고 있다.

1946년 이래 1991년까지 45년간 150여 명의 地理學 教授가 그 직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113명이 27개의 地理學科 및 地理教育科에 재직중이다. 현재 지리계통 교수의 평균연령은 47.9세이며 중위 연령은 51.6세이다. 박사학위 소지 교수의 비율은 1991년 현재 79%이다.

2) 地理學科와 地理教育科

地理學의 研究는 국내에서는 地理學科와 地理教育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초·중등 및 대학에서 地理의 概念을 교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地理教育이라고 한다면, 지리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의 敎科課程 內容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地理學은 그 學問의 構造的 성격 때문에 人文地理學과 自然地理學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서 지리학 관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분야는 어떤 대학에서는 社會科學大學에, 어떤 대학에서는 自然科學大學이나 理科大學에, 어떤 대학에서는 師範大學에 學科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학과가 각각 다른 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과되는 敎科課程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는 社會科學으로서의 地理學 개념이 매우 강하며, 자연과학대학이나 이과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에서는 數理的인 면을 강조하는 교과목이 중시되고 있다. 한편,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地理教育科에서는 地理教育論이나 地理敎材研究 등과 같은 과목이 강조되고 地域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地誌的인 교과목의 이수가 요구된다.

3) 師範大學의 地理教育

사범대학에서의 地理教育의 목적은 중등교사로서 社會科目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敎師를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는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地理學의 學問的 입장으로서의 깊이보다는 學問的 깊이는 얕더라도

도 폭 넓게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기도 한다.

3. 地理教育科의 특색 프로그램

1) 踏査

地理教育科에서는 매학기 정기적으로 踏査를 실시한다. 學點에 관계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사에도 진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답사의 목적은 理論으로만 배운 내용을 現場에서 확인하고 분명하게 概念整理를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교통수단이 신통치 않을 때는 답사·코스를 정한 다음에 계획에 맞추어 답사를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踏査地域이 공개되어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답사가 그 신선미를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師範大學의 경우, 교사양성이라는 目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학중 가능한 한 많은 地域을 답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特定地域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地域性을 철저히 조사·연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2) 教育實習

교사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육실습은 필수적이며, 그러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는 매우 약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습을 받아주는 現場學校와 실습을 보내는 大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制度的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선 中等學校에서는 實習生 받기를 꺼려하고 大學 측에서는 억지로 부탁하는 식의 일들은 양자가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그러한 원인은 이미 實習을 거쳐간 학생들의 現場學校에서의 실습태도가 어떠하였는가가 문제되겠지만 보다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4. 地理教育科의 教育課程

1) 大學에서의 教育課程

教育課程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大學教育의 사명과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이 문제가 된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네 가지 사명을 띠고 그 存在價値를 구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첫째는 知識의 전수를 행동의 원리로 삼는 教育의 사명, 둘째는 研究의 사명, 셋째는 奉仕의 사명, 넷째는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만들어 내고 시범을 보이는 知的 行動의 사명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大學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갈등의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대학 나름으로 특성있는 自我實現을 이룩하는 일이다. 즉, 교육과정에 있어서 각 대학마다 독특한 창조적인 개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특히 教育課程의 편성과 운영에서는 확일적이지 아닌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多樣化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教育課程의 意味를 확대시키고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다양화는 대학 교육과정의 기본요소를 각 대학마다 독특하게 개념정의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교육과정을 運營하는 면에서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教育課程을 어떻게 開發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수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기초를 두지 못한 교과과정 개발은 심한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大學은 원래 다른 사회조직과는 달리 복합적인 조직체라고 볼 수 있고, 교수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학사회 자체는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수들의 改革에 대한 강한 의지의 발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대학에서 교수들은 교육과정의 質的 管理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다.

專攻課程은 대학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창출·전수·활용으로 대변되는 대학의 기능적 특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대학인들의 知的 삶의 集合體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요소이다. 大學教育이 초·중등학교와 다른 점은 大學에서는 專攻教育을 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대학교육은 專攻教育과 동일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공학과와

과도한 분화와 번식은 전공분야 교육을 너무 심화시켜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전공 교육과 정의 理論科目化 경향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 내용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기도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을 전공에만 매달리게 해서 다른 대학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교육은 대학사회에서 學科 또는 專攻分野를 단위로 교수의 상호 분리와 학생들을 서로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성이 있다.

2) 地理教育科의 教育課程

地理教育科의 교육과정은 地理學科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에 속해 있거나 자연계열에 속해 있으면서 계열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敎科課程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師範大學이나 教育學部에 속해 있는 地理教育科의 대부분은 敎師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系統的인 분야로서 人文地理學 분야의 과목으로는 경제지리학, 취락지리학, 도시지리학, 인구지리학 등이 있다. 自然地理學 분야로는 지형학, 기후학 등이 있고 각 대륙별 지역지리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지리교육론, 지리교재연구 등의 교과목과 교육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學科運營의 現況 및 問題點

1) 教育課程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教育課程이 교사양성을 위한 쪽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師範大學의 설립 목적이 교사양성이라는 기본논리를 들고 나오면 논리적으로 약할런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학생들의 人格形成에서 차지하는 敎師와 學校의 역할이 증진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약화된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교사들이 전공에 관한 심오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師範教育에서의 敎師養成 개념이 적당한 전공교육에 얼마간의 敎職科目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범대학에서 늘 갈등

을 겪고 있는 것은 사범대학에서의 敎育論과 專攻과의 관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師範大學 敎育課程에서 敎育學이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敎育학과의 교수와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사이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敎育學 관계 교수들은 훌륭한 敎師가 되기 위해서는 專攻知識에 앞서 敎育學 理論으로 튼튼하게 무장을 해야 피교육자를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專攻科目 교수들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교과의 내용을 “잘 알아야 잘 가르친다”는 소신 아래 전공교과의 내용을 충실히 學習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를 인정할 때 敎育學 이론은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비중을 둔다면 專攻學點을 늘려서라도 더욱 많은 畧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사실 종전의 실험대학 체제 운운하면서 졸업이수 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낮춘 것은 실험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師範敎育 전체의 학점관리 등에 관한 綜合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敎育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 것과, 전공교과목의 비중 70% 중에서도 敎育論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敎育학의 비중이 커진 것도 일반 他專攻敎科 교수들은 그렇게 결정되게 된 배경이나 당위성을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이는 師範敎育에서 훌륭한 敎師養成이라는 미명 아래 敎育學의 영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敎育學과 敎育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교사양성 제도에서는 地理敎育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사립과 국립과의 문제, 師範系와 非師範系와의 人力資源 수급관계도 치밀한 科學的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비사범계의 교사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강화하거나 점진적으로 없애버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2) 進路指導

地理敎育科 학생의 졸업후 진로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學科의 性格 이전에 교사양성제도의 수요·공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거니와 制度的으로 보완·정리되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師範大學의 地理敎育科는 특히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취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개 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일선 중등학교에서 교사임용시 여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改善方向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敎師의 역할이나 학교의 기능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傳統的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學校나 敎師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교사나 학교에 거는 역할 기대치는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된다.

지리교육과 운영 및 졸업생 취업 등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는 교사의 대우 문제, 교과목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문제, 국가 시험에서의 기회균등 문제, 교육실습에 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 敎師의 待遇

교직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근본적으로 조성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비단 지리교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범계 학과에서 우수한 교사를 배출하기가 어렵다. 결국 수업의 質을 좌우하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적성은 물론 기타의 능력있는 사람이 사범교육을 받을 수 있는 誘引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대우는 학교의 교육여건이나 학생의 수준보다도 먼저 잘 정리되어야 할 교육의 가장 큰 선결문제라고 생각한다.

2) 教育環境

교과목을 포함한 교육환경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 교과목의 개설 운영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師範大學 地理教育科의 경우는 이러한 점이 미약하다. 간단한 예로 지리교육과 교과목에서 CAD에 의한 地圖作成이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같은 최신 교과목에 관한 교육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제반 시설이나 여건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항공사진의 地理的 이용도 여러가지 시설로 인해 지극히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자체의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큰 문제의 하나는 중학교의 사회과에 관한 것이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득하는 교사자격증은 社會(地理)科 자격증이다. 따라서 중학교 사회교과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사회 교과목에 속해 있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중학교 사회과의 통합교과를 주장하는 명분은 그런대로 존재할런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교사양성의 문제나 교과서 편찬의 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고 제도만을 성급하게 받아들인 듯한 인상이다. 즉, 현재의 사범대학 교수 중에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목에 맞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학과의 편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중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도 명목만의 통합교과이지 실제 내용은 章別로 異質의 내용을 한 책에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들은 학부에서의 자기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지만, 다른 부분은 열심히 교재준비를 해서 가르치자니 힘이 들고 귀찮을 뿐 아니라 자신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은 대강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심리적인 고통 또한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중학교 수준에서 교사가 교재준비를 해서 시간을 배울 수는 있어도 가르치는 내용의 깊이나 質까지를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사회과나 과학과 교사자격증을 얻

기 위해서는 기본이수영역 학점으로 몇 학점씩을 이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의 학점이수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통합교과 운영은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가르치는 교사의 불만이 누적되어 교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등학교에서의 國土地理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제6차 교육과정 시안 작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도 하였지만, 중등학교 이수단위의 조정은 사범교육의 진로나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특히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지방'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統一을 대비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최래의 과제이다. 國際化和 地方化를 통하여 先進化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등교육과정의 교과목은 時間性을 대변하는 '歷史'와 삶의 터전인 空間性을 종합한 '地理'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등교육과정은 학문을 연구하는 大學의 세분된 학과 및 학문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太平洋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한 전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그것을 담당하는 교과목은 '국어', '국사', '국토지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세 과목은 必須科目으로 지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과목에서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地理學科나 地理教育科의 교과목 중에서도 國土統一에 대비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과 그 공간성의 바탕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韓國地理는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를 바탕으로 과거 수천 년을 살아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국토지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地方化 시대를 강조한 교육과정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한 국토지리는 필수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教育實習

교육실습 문제는 비단 지리교육과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師範大學生 전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습문제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실습을 받아주려는 학교의 數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일선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후세 교육을 위한 巨視的인 안목에서의 投資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는 하다.

7. 結 論

地理學 관련 학과들은 해방 이후 量的으로 팽

창해 왔으나, 다른 사회과학 분야나 자연과학의 발전에 비하면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다.

거기에는 地理系 學科뿐 아니라 師範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학과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취업기회와 시험기회, 교과과정의 문제, 교적을 택할 때의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등학교 敎育課程에서 일선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 '특정 학과 편중'을 들 수 있다. 21세기를 향하는 교육,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학과의 운영 등을 위해서도 중등학교나 대학 교양과목 등에서도 地理敎育에 관한, 즉 空間概念과 그에 관한 이해를 돕는 敎育課程은 꼭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